

요약

2014. 10. 27. 주간

6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4년 양념채소와 맥류 재배동향

농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

가공식품, 식량작물, 엽근채소, 양념채소, 축산

농식품 수출 동향

고추장 해외시장에서 인기몰이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 개발
양파 노균병, 아주심기 시기부터 관리

정책동향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농협, 김장배추 10만5천톤 계약...작년 두배

해외 농업정보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월 전망치 대비 0.6%p 증가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사업신청 안내

농작물재해보험 꼭 활용하세요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주간 기상전망(농촌진흥청)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5~8도, 최고기온 : 18~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농작물 재배동향(전라남도)

▶ 양념채소

- 대 파 : 전라남도의 2014년 대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주산지인 진도와 신안에서 재배면적이 각각 1.0%, 0.8%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남 전체로는 전년대비 1.2%(39ha) 감소

▶ 맥 류

- 맥 류 : 전라남도의 2015년 맥류 재배의향 조사 결과, 걸보리 303ha, 쌀보리 9,170ha, 맥주보리 3,782ha, 밀 2,993ha로 맥류 전체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15% 증가

농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쌈표) 4,780원/L, 고추장(대상) 953원/100g, 김치(대상) 6,955원/kg, 두부(풀무원) 1,239원/100g

- 전년대비 간장 4.3% 상승, 고추장 -8.5% 하락, 김치 15.6% 상승, 두부 13.9% 상승

- ▶ 식량작물 : 쌀 42,200~43,000원/20kg, 고구마 19,800원/10kg

(전년보다 쌀 약세, 고구마 보합세)

- 쌀은 작년보다 생산량이 소폭 감소 예상되지만, 소비감소로 하락
- 고구마는 성출하기 출하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비감소로 보합세

- ▶ 엽근채소 : 배추 480원/kg, 무 540원/kg, 당근 31,400원/20kg

(전년보다 배추·당근 약세, 무 보합세)

- 배추는 출하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무는 가뭄으로 작황저조와 소비량 감소
- 당근은 가을작기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량 증가로 하락

▶ **양념채소** : 건고추 8,640~9,000원/600g, 마늘 3,420원/kg, 대파 1,140원/kg
(건고추와 마늘은 전년보다 강세, 대파는 약세)

- 건고추는 김장철 수요 증가로 상승, 마늘은 2014년산 입고량이 적어 상승
- 대파는 작황이 좋고 김장철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하락

▶ **과 채 류** : 토마토 23,600원/10kg, 방울토마토 11,400원/5kg(전년보다 약세)
· 최근 큰 일교차로 생육 부진에 따른 상품성 떨어지고 소비 부진으로 하락

▶ **특용작물** : 들깨 414,000원/45kg(전년보다 강세)
· 여름철 마른장마로 인해 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 상승

▶ **축산물** : 닭고기 5,890원/kg(전년보다 약세)
· 소비가 개선되고 산지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가격은 하락

농식품 수출 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우리 고추장 해외시장서 인기몰이

- 올해 내내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며 9월까지 2,180만달러 전년대비 26.5% ↑ ...대미 수출 1,000만달러 달성 눈앞

▶ 정부, 엔저 피해 수출기업 환변동보험료 지원 확대

- 농수산물 수출기업 환변동보험료 재정지원 현행 90%에서 95%로 확대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 개발

- 벼 키가 73cm로 '남평벼(78cm)'보다 작아 잘 쓰러지지 않으며 벼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함

▶ 양파 노균병, 아주심는 시기부터 관리하세요!

- 양파 1차 노균병 방제는 아주심기를 직후인 10월 하순~11월 상순에 10일 간격으로 2차례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선 주요내용

- 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GAP 지정시설 경우 의무 완화

▶ 농협, 김장배추 10만5000톤 계약...작년 두배

- 김장용 가을배추 계약물량을 지난해(5만8000t)보다 두배 정도 많은 10만5000톤으로 대폭 확대(전남 2만 370톤, 전국대비 19.4%)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옥수수 생산량 전월 전망치 대비 0.6% 증가 전망

- 2014/15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역대 최대 9억 8,590만톤, 전월(8월) 보다 630만 톤(0.6%) 증가 전망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곡물가격, 최고치에서 하락

사업신청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 안심농사 도우미! 농작물재해보험

- 기간/판매처 : '14. 10. 1. ~ 11. 28./지역 및 품목 농협
- 보험 대상 :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 지원 :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 국고 지원

▶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4. 10. 20. ~ 11. 30./농지소재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 경영체

▶ 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 직불금 신청상황
 - 논 농업 : 131천농가 172천ha
 - 밭 농업 : 36천농가 49천ha
 - 조건불리 : 38천농가 16천ha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14. 11.~12월
-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지급액의 2배 회수 및 5년간 등록 제한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4. 10. 2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율(%)		
		판매단위	당일(10/27)	1주일전(10/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곡류	쌀(햇일반계)	20kg	42,200	42,200	-	44,800	39,853	↓5.8	↑5.9	
	콩(백태)	35kg	137,000	138,000	142,000	199,900	202,300	↓31.5	↓32.3	
	고구마(밤)	10kg	19,800	21,000	23,200	18,300	21,460	↑8.2	↓7.7	
	감자(수미)	20kg	20,000	19,600	22,050	20,050	26,093	↓0.2	↓23.4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480	480	721	488	587	↓1.6	↓18.2	
	양배추	10kg	4,600	4,600	4,520	5,275	7,422	↓12.8	↓38.0	
	오이(다다기계통)	10kg	25,333	25,667	25,250	35,333	29,533	↓28.3	↓14.2	
	애호박	8kg	13,600	13,200	9,500	18,550	18,223	↓26.7	↓25.4	
	토마토	10kg	23,600	28,000	33,950	29,900	34,647	↓21.1	↓31.9	
	무(고랭지)	1kg	540	530	610	500	619	↑8.0	↓12.8	
	당근	20kg	31,400	37,400	55,950	37,450	42,310	↓16.2	↓25.8	
	건고추(화건)	60kg	864,000	864,000	894,000	690,000	883,333	↑25.2	↓2.2	
	풋고추	10kg	38,600	38,800	39,350	23,650	40,123	↑63.2	↓3.8	
	마늘(난지)	10kg	34,200	34,200	33,400	27,800	34,473	↑23.0	↓0.8	
	양파	1kg	520	520	528	980	899	↓46.9	↓42.2	
	대파	1kg	1,140	1,120	1,180	1,350	1,729	↓15.6	↓34.1	
	파프리카	5kg	29,400	29,800	31,400	21,750	31,370	↑35.2	↓6.3	
	방울토마토	5kg	11,400	12,000	13,200	19,500	21,157	↓41.5	↓46.1	
	과일류	참깨(백색)	30kg	520,000	524,000	524,000	537,000	542,533	↓3.2	↓4.2
		들깨	45kg	414,000	424,000	437,000	383,000	306,333	↑8.1	↑35.1
새송이버섯		2kg	7,000	7,000	7,800	8,400	-	↓16.7	0.0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율(%)	
		판매단위	당일(10/27)	1주일전(10/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과일류	사과(후지)	15kg	60,000	-	-	-	-	0.0	0.0
	배(신고)	15kg	29,400	28,400	28,000	32,550	34,397	↓9.7	↓14.5
	포도	15kg	12,600	14,000	14,750	16,950	16,567	↓25.7	↓23.9
	단감	5kg	29,000	27,000	-	40,800	-	↓28.9	0.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72	6,773	6,785	6,088	7,079	↑17.1	↓2.2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28	1,765	1,988	1,488	1,610	↑17.8	↑25.2
	닭고기	1kg	5,890	5,198	5,015	6,840	5,158	↓14.6	↑6.8
	계란(특란)	10개	1,894	1,966	1,971	1,899	1,800	↑0.6	↑8.3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33	2,213	↑0.4	↑13.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4. 10. 27. 기준)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락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97 천원	4,650 천원	3,772 천원	↑3.2	↑27.2
	거세	5,482 "	5,631 "	5,327 "	↓2.6	↑2.9
송아지 (6~7월)	암	1,978 "	1,878 "	1,197 "	↑5.3	↑65.2
	수	2,502 "	2,410 "	1,988 "	↑3.8	↑25.9
육우(600kg)	3,239 "	3,270 "	2,505 "	↓0.9	↑29.3	
젖소수송아지(7일령)	26 "	20 "	19 "	↑30.0	↑36.8	
돼지(110kg)	386 "	391 "	248 "	↓1.3	↑55.6	
육계(원/kg)	1,776 원	1,693 원	2,098 원	↑4.9	↓5.3	
계란(원/특란10개)	1,293 원	1,263 원	1,408 원	↑2.4	↓8.2	
오리(원/kg)	2,166 원	2,166 원	2,266 원	0.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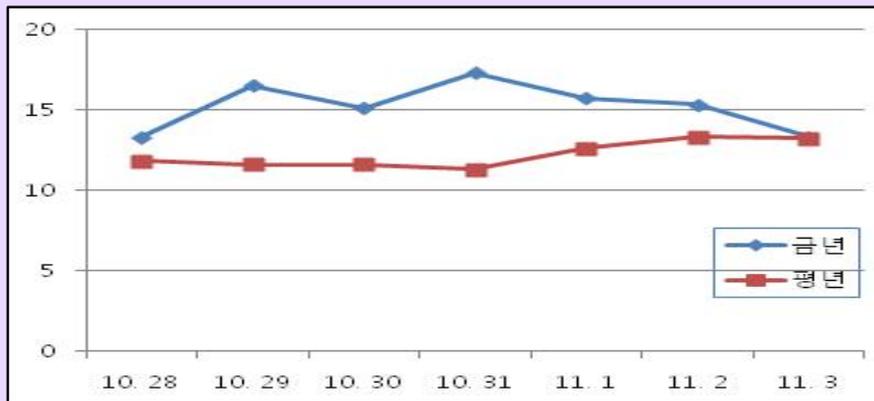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호남내륙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15.2	12.2	3	19.4	19.5	-0.1	10.7	6.4	4.3	3.2
10. 28(화)	13.3	11.8	1.5	21.2	19.5	1.7	9.7	5.9	3.8	0.5
10. 29(수)	16.5	11.6	4.9	19.3	19.5	-0.2	9.6	5.3	4.3	0
10. 30(목)	15.1	11.6	3.5	20	18.5	1.5	14	6	8	0
10. 31(금)	17.3	11.3	5.9	18.9	19.3	-0.4	9.5	5.3	4.2	0.7
11. 1(토)	15.7	12.6	3.1	20.3	19.9	0.4	10.6	6.1	4.5	1.3
11. 2(일)	15.3	13.3	2	17.5	19.3	-1.8	10.2	8.8	1.4	0.3
11. 3(월)	13.3	13.2	0.1	18.3	20.2	-2	11.3	7.1	4.2	0.4

*기온은 평균이고, 강수량은 합계이며, 평년은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작물 재배동향

양념채소 : 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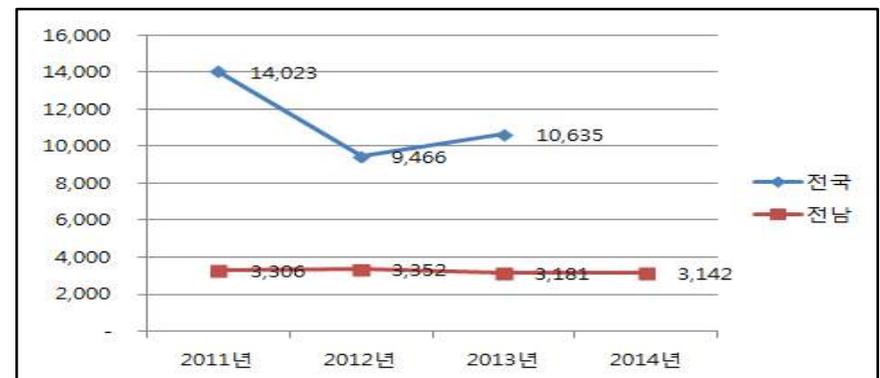
○ (대파) 전라남도에서 2014년 대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대파 주산지인 진도와 신안에서 재배면적이 각각 1.0%, 0.8%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남 전체로는 전년대비 39ha, 1.2% 감소

▶ 2014년 대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단위 : ha, %)

시 군	재 배 면 적		증감(A-B)	증감률	비 고
	2014년 (A)	2013년 (B)			
전 남	3,142	3,181	-39	-1.2	
진도군	1,398	1,384	14	1.0	
신안군	1,176	1,167	9	0.8	
영광군	340	370	-30	-8.1	
해남군	136	145	-9	-6.2	
기 타	92	115	-23	-20.0	

▶ 연도별 대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맥 류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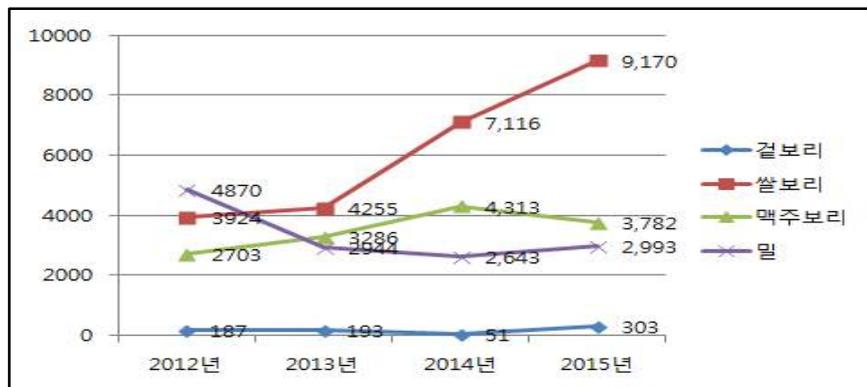
○ (맥류) 전라남도에서 2014/15 맥류 재배의향 조사 결과, 겉보리 303ha(전년대비 494% 증), 쌀보리 9,170ha(전년대비 29% 증), 맥주보리 3,782ha(전년대비 12% 감), 밀 2,993ha(전년대비 13% 증)로 맥류 전체 재배의향 면적은 15% 증가

▶ 맥류의 2014년 재배면적과 2015년 재배의향 면적 조사 결과

(단위 : ha, %)

시 군	재 배 (의향) 면 적		증감(A-B)	증감률	비 고
	2015년 (A)	2014년 (B)			
맥 류	16,248	14,123	2,125	15	
- 겉보리	303	51	252	494	
- 쌀보리	9,170	7,116	2,054	29	
- 맥주보리	3,782	4,313	-531	-12	
- 밀	2,993	2,643	350	13	

▶ 연도별 맥류 재배면적 추이와 2015년 재배 의향 면적(ha)



3. 농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

식량작물 : 고구마

○ (고구마) 10월 가격 10kg에 19,800원

- 성출하기 출하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비감소로 전년대비 가격 보합세 전망

엽근채소 : 당근

○ (당근) 10월 가격 20kg에 31,400원

- 소비감소와 시장 반입물량 감소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가을작기 재배면적 증가로 공급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전년보다 가격 하락 전망

양념채소 : 대파

○ (대파) 10월 가격 1kg에 1,140원

- 올해 대파의 작황이 좋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가격 하락 전망

과 채 류 : 토마토, 방울토마토

○ (토마토) 10월 가격 10kg에 23,600원

- 최근 기온하강으로 생육이 부진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 부진으로 전년보다 가격 하락 전망

- (방울토마토) 10월 가격 5kg에 11,400원
 - 큰 일교차와 향후 생육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나, 소비부진으로 전년보다 가격 하락 전망

버섯류 : 생표고

- (생표고) 10월 가격 4kg에 33,600원
 - 10월 중순 이후 재배규모 증가 추세에 따라 작년보다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가격은 소폭 하락 전망

특용작물 : 들깨

- (들깨) 10월 가격 45kg에 414,000원
 - 여름철 마른장마로 인해 들깨의 작황이 좋지 못하여 햇 들깨가 출하되고 있으나 가격은 상승 전망

축산물 : 닭고기

- (닭고기) 10월 가격 1kg에 5,890원
 - 소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년대비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전년보다 가격은 하락 전망

이슈 품목 중점분석(가을배추, cT)

■ 재배면적 : 전년대비 1% 감소, 평년대비 4% 증가한 14,961ha 전망

- (평년) 14,366ha → ('13) 15,095ha → ('14) 14,961ha
- * (정식) 8월 하순~9월 상순 / (출하) 10월 하순~12월

■ 생산량 : 전년과 비슷, 평년대비 4% 증가한 1,533천톤 전망

-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이 증가했던 전년과 비슷
- (평년) 1,472천톤 → ('13) 1,536천톤 → ('14) 1,533천톤
- 8월 하순 호남지역의 집중 강수로 정식지연이 있었으나, 9월 상순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호조로 전년보다 작황양호
- (주출하지) 충청(서산·당진·아산), 전라(해남·무안·진도), 강원(강릉) 일부지역

■ 가격동향

- (10월) 전년대비 9% 하락, 평년대비 31% 하락한 3,803원/10kg * 10.1~10.20 기준
- (평년 10월) 5,505원/10kg → (전년 10월) 4,161원/10kg → ('14. 10월) 3,803원/10kg
- 준고랭지 배추의 작황양호 및 지속적인 소비부진으로 평년 및 전년 동월대비 가격하락

■ 수급전망 : 작황양호에 따른 공급과잉

- 가을배추 작황양호로 조기 출하작업이 전망되면서 가격하락을 우려한 준고랭지 배추 출하작업이 10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생육기(9월)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라 11월 상순부터 출하예정인 가을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61천톤 과잉 전망

■ 수급안정대책

- (시장격리, 100천톤)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으로 100천톤(정부 50, 자율 50) 단계적 시장격리
- 준고랭지 및 가을배추 출하시기인 10월 하순~11월 하순까지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수요확대, 45천톤) 소비촉진(43천톤) 및 수출확대(2천톤)
- (수매량) 방출 자제 * 준고랭지 1,658톤(10.20 기준)

■ 단기 가격전망

- 준고랭지 배추의 작황양호로 상품성이 높고, 출하량도 전년과 비슷하여 3,000~4,000원/10kg 유지 전망

■ 중기 가격전망

-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시장격리)에 따라(10월 하순, 20천톤) 3,500~4,500원/10kg 유지 전망

4. 농식품 수출동향

■ 우리 고추장 해외시장서 인기몰이

- 올해 내내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 9월까지 2,180만달러 전년대비 26.5% ↑ ...대미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눈앞

고추장이 올해 내내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며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수출통계에 따르면 9월 현재 고추장 수출(누계)은 2,180만달러로 전년 동기(1,720만달러)와 비교해 26.5% 늘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고추장 수출(2,431만달러)의 90%에 다다른 수준. 수출물량도 같은 기간 8,750톤으로 지난해 동기(7460톤)보다 17.3% 증가했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평균 29.8%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괄목할만하다.

수출지역도 그동안 미국·일본·중국에 편중된 것에서 벗어나 유럽과 동남아, 중동까지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며 ‘고추장의 세계화’에 한걸음씩 근접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단일 품목으로는 전체 소스류 수출에서 항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마요네즈(9월 누계 1,860만달러)를 이미 앞지르며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전통장류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처럼 고추장이 지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난 이유로는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에서 꾸준한 인기와 함께 한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현지인들이 아시아 지역의 매운 음식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식 핫소스(Hot Sauce)인 고추장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미국 유명 프로그램인 ‘NBC 투데이쇼’가 고추장을 그 해의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

뉴욕 aT 관계자는 “미국에서 비빔밥과 떡볶이, 낙지볶음을 비롯한 우리의 매운 음식이 활발히 소개되고, 국내 장류업계도 미국인 취향에 맞는 튜브형·소포장 고추장 제품을 속속 개발해 현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판촉을 강화하면서 고추장 인지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고추장 대미 수출 1000만달러 달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류의 인기도 한 몫 했다. 특히 신규시장으로 꼽히는 유럽과 동남아, 남미, 중동지역에서 우리 드라마가 활발히 전파를 타면서 현지 한류 마니아를 중심으로 고추장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9월 현재 말레이시아(183.6%), 아랍에미레이트(101.1%), 네덜란드(48.9%), 브라질(23.6%) 등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드라마의 인기로 한식이 알려지고, 이는 고추장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예전과 비교해 신규시장 개척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보급과 포장 다변화 등 현지 취향에 맞는 마케팅을 지속한다면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엔저 피해 수출기업 환변동보험료 지원 확대

-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현행 90%에서 95%로

엔화 약세(엔저)로 수출 농민 및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 정책으로 2013년 7월말 1,126원 수준이었던 엔화 환율이 올 7월에는 100엔당 1,007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최근에는 970원대까지 하락했다. 6일 기준 엔화 환율은 975.14원이다.

이같은 엔저 심화로 농산물 대일 수출은 악화일로다. 2010년 1억306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은 국내 화훼수출은 지난해 6,118만 2,000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수출 물량은 2010년 1만2,550톤에서 지난해 7,913톤으로 대폭 줄었다. 올 8월까지의 수출 실적 역시 지난해 3,640만 달러보다 35.7% 감소한 2,34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일 수출 효자품목인 파프리카도 수출량은 늘지만 수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농수산 수출기업 환변동보험료 재정지원을 현행 90%에서 9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자부담율은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됐다. 지원대상은 대일 수출 농식품기업 489개, 수산식품기업 190여개이다.

수출 환변동보험은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이 환차손을 입었을 때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가입 조건도 완화됐다. 온라인 및 우편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을 방문해 이용방법 및 컨설팅 등 가입업무를 대행해준다.

무역협회의 보험료 보조 한도도 대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홍보 및 컨설팅도 강화된다. 대일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환위험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증진공예 엔저피해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지역순회 방식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엔저대응 대책을 홍보하고 수출 기업 대상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위험관리 교육과정을 추가키로 했다.

여기에 엔저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국,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해외진출지원센터, 수출 첫걸음 지원팀 등을 통해 일본 수출을 중국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식문화조사단 운영 확대 및 민관 공동현지조사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중국 등과의 검역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동남아 이슬람국가 진출을 위해 할랄 등 해외인증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 할랄인증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으며, 품목당 2,000만원의 인증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수출진흥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환변동보험 기업 부담분이 절반으로 축소해 농수산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변동 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순회 방식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 개발

농촌진흥청은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을 개발했다.

벼 흰잎마름병은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병으로 50% 발병하면 수량은 29%, 완전미율은 19% 줄어든다. 충남 이남의 평야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145ha의 논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개발한 ‘해품’은 **재배 안정성이 높으며, 특히 밥맛과 쌀의 모양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벼 키가 73cm로 ‘남평벼(78cm)’보다 작아 잘 쓰러지지 않으며 벼흰잎마름병(K1~K3, K3a)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다. 남부 평야지에서 5월 30일 모내기를 했을 때 이삭패는 시기가 8월 11일로 ‘남평벼’보다 3일 정도 빠른 중생종이다. 쌀 수량은 10a당 526kg으로 ‘남평벼’와 비슷하나 밥맛이 매우 좋은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종자 증식 과정을 거쳐 2017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벼육종재배과 남정권 박사는 “앞으로 ‘해품’과 같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고 밥맛도 좋은 쌀을 개발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발한 최고품질 벼는 ‘해품’을 비롯해 ‘하리아미’, ‘삼광’ 등 13품종이 있다.

■ 양파 노균병, 아주심는 시기부터 관리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양파 1차 노균병을 줄이기 위해 아주심기를 한 직후 적용 약제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양파 노균병은 생육 단계와 피해 증상에 따라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뉜다. 1차 증상은 곰팡이균이 겨울나기 전에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기온이 오르는 2월~3월경 어린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이후 노균병 포자가 이리저리 옮겨 다녀 주변 양파도 감염돼 2차 피해를 일으킨다.

연구 결과, **양파 1차 노균병 방제는 아주심기를 한 직후인 10월 하순~11월 상순에 10일 간격으로 2차례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아주심는 시기가 빠를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볼 때 1차 노균병은 아주심는 시기(월동 전)에 감염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차 노균병 증상이 나타나는 2월~3월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없으므로 아주심는 시기에 방제를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최인후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양파 노균병 방제 적기를 밝힘으로서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양파노균병은 최근 겨울나기 중 기온이 따뜻해 병 발생이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양파 재배지인 전남 무안 등 65% 이상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 저탄소 채소 생산, 합리적인 비료 사용부터!

농촌진흥청은 농가 표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전과정평가법을 이용해 노지와 시설재배지의 무와 배추, 부추의 탄소성적을 산정했다.

생산단계별 탄소 발생 비율을 보면, 농자재 제조 단계에서 62.7%, 채소 생산 단계에서 36.6%, 농자재 폐기 단계에서 3.5%가 발생한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농자재는 비료로, 이중 부산물 비료 제조 단계에서 35.7%, 복합비료 제조 단계 12.9%, 단일비료 제조 1.3%, 질소비료 투입에 따른 아산화질소 발생 단계에서 29.2%로 나타났다.

즉, 노지와 시설재배지 채소의 온실가스발생량 중 79.1%가 비료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비료사용처방서만 활용해도 비료 사용량을 줄여 경영비 절감은 물론, 염류 집적 방지,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흙도람**(<http://soil.rda.go.kr>) 비료사용처방서는 농경지의 양분 함량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양분 요구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비료량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115종의 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이덕배 과장은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 중 3.3% 수준이나,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농가에서 흙도람 비료사용처방서를 잘 활용하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획득은 물론, 비료 비용을 낮추고 땅의 힘을 키워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고품질 ‘액비’를 활용하자.

지자체마다 지역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기능성 쌀에서부터 친환경 쌀까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갖가지 농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능성이 가미되고 친환경 재배로 생산되는 쌀은 값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생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순천 별량농협(조합장 최진도)과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이 의기투합해 펼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친환경 쌀 생산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순천광양축협이 축산농가들로부터 수거·처리해 공급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별량농협에서 활용해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인데, 생산비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친환경 벼 재배로 관행보다 40%이상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에서 액비를 활용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1998년부터 대규모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별량농협은 당시 관행농업보다 훨씬 높은 친환경 농자재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액비를 활용한 경축자연순환농업을 도입했다.

김정현 별량농협 과장대리는 “친환경쌀 농업의 특성상 영농자재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 관행농업보다 훨씬 높아 농가에게 영농비 부담이 너무 컸다”며 “순천광양축협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한 고품질 액비를 친환경농법에 접목**한 뒤 기존 **고비용 자재비를 절감**하고 **토양개선 등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액비는 당해 벼 수확이 끝난 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2회 살포하고 있다. 10a(300평)당 살포량은 3t 정도다.

액비 사용 후 벼 수확량 증가보다는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량농협이 2011년부터 실시한 시범포 운영결과 10a당 조곡 수확량은 600kg 정도로 관행 재배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비와 추비 등 영농자재비에서는 10a당 5만2200원의 차이가 났다. 무농약 친환경 벼 시범포에는 액비 3t과 120kg, <맞춤16호> 20kg, <맞춤추비 29호> 5kg을 투입해 6만5550원의 생산비가 들어가 일반 재배(11만7750원)보다 5만2200원이 절약됐다.

1만3200㎡(4000평)의 무농약 친환경벼를 재배중인 심우선 별량친환경쌀 작목반장(63)은 “2011년부터 가축분뇨 액비를 쓴 뒤 생산비를 40~50%는 줄일 수 있었다”면서 “게다가 벼 생육기 수세형성이 잘 되고 등숙률과 현미율도 양호하게 나타나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겨울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사료작물 수확이 4월 이후에나 가능해 액비 살포시기와 벼 이앙시기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액비를 써 벼농사를 지으려면 살포시기와 적정 시비량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도 별량농협 조합장은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참여농가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순천미인쌀> 등 친환경 쌀 브랜드 외에 향후 액비를 이용해 생산된 친환경 쌀 브랜드를 개발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6. 정책동향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GAP 인증절차 통합 등

가. GAP 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 (현행) GAP인증 신청절차가 3단계로 복잡하여 농가의 인증참여가 어려움
- (개선) 인증 신청기관 통합, 인증신청 절차 단순화
 - GAP인증기관에서 인증절차 통합 처리(최대 126일 → 42일로 단축)
 - 구비서류 감축(12건 → 3건, GAP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2종)



나.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 (현행) GAP인증을 받으려면 다른 제도인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함
- (개선) GAP제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이력추적관리 등록규정 폐지
 - GAP기준 내에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보완(식별번호 자율부여)
 - *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자율적인 식별단위(로트) 번호 부여 및 관리

다. GAP 지정시설 경유 의무 완화

- (현행) GAP인증을 받기위해서 GAP시설 지정을 받거나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율 출하 장애
- (개선) GAP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GAP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적정수준의 자가보유시설 이용 가능)
 - 인증심사 시 위해요소 적정관리 여부 확인절차 마련(평가표)
 - * 인증심사 시 수확 후 위해요소 점검을 위해 농가단위 시설 점검



2 GAP 기준 내실화

가.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신설로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강화

- (현행) GAP 인증기준에 위해요소 분석, 모니터링, 개선조치 등에 대한 관리조항 미비로 안전성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개선) 작물재배·시설관리 중심의 GAP 인증관리체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안전성관리 수준 제고
 - 부산물비료 위해요소관리와 농업환경·생태계보전의무 부여
 - 인증신청 시 기존 생산계획서를 대체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신설)를 작성 제출

나. GAP 시설 기준 정비

- (현행) 위해요소관리를 위해 필요이상 과도하고 일률적인 시설기준 적용
- (개선)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기준을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적정수준으로 완화
 - 농가부담 최소화하고 구체적 적용이 가능토록 시설기준 정비

다. 농산물우수관리(GAP)기준 적용대상 품목 통합

- (현행) 6개 품목군별로 복잡하게 분류(식량, 과수, 채소 등)
- (개선) 전체 품목을 통합(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농산물)

라. GAP인증 농산물 표시사항 개선

- (현행) 이력추적등록번호, 등급표시 관리 등에 따른 노력과 비용 추가 소요
- (개선) GAP인증농산물 표시사항에 이력추적등록번호·등급 표시항목 삭제
 - * '표준규격출하품 등급표시' 외에는 자율사항이나 GAP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관장 기준)

마. 전문가에 의한 인증심사 적부판정제도로 개선

- (현행) 인증위원회 심의
- (개선) 인증심의관계 도입(신설)
 - 인증심사 적부판정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증심의관 규정 마련

바. 농가 평가를 통한 효율적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 (현행)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의한 적부판정, 점검결과 위반사항 행정처분 위주 관리
- (개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에 따라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의 부담감 완화
 - 평가결과 85점 이상 적합, 70-84점 기술지원(컨설팅), 69점 이하 부적합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AQ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RDA
농촌진흥청
www.rda.go.kr

◆ 농협, 김장배추 10만5,000톤 계약...작년 두배

농협중앙회가 김장용 가을배추 계약물량을 지난해(5만8,000t)보다 두배 정도 많은 10만5,000t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본격 출하기인 11월 상순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1만t을 자체적으로 우선 시장 격리한다. 농협은 이후 수급상황을 보며 가격 지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정부와 협력해 9만t을 단계적으로 추가 격리할 예정이다.

농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장배추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황 호조에 힘입어 김장용 가을배추 물량이 평년보다 6만1,000t 증가한 153만3,00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출하 조절 등 선제적인 가격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이와 함께 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대국민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한다. '김장 더 담그기 김치 나눠 먹기!' 캠페인을 통해 김장채소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기업체와 손잡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장채소 상생마케팅 확대 ▲절임배추 예약판매 실시 ▲배추 수출 활성화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서 농업인·소비자·기업체가 함께하는 '국민행복 나눔! 김장축제'를 여는 한편, 자체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a마켓'을 통해 절임배추 예약판매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김장철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에서 김장시장을 상설 운영하고 거점 소비지 직거래장터도 개설해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 출처 : 농민신문

◆ **경영이양직불금 74세까지 신청**

내년부터 71~74세 농업인도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65세에서 70세까지만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받을 수 있는 양수대상자 자격요건(연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를 사거나 빌리는 농업인이 **전업농일 경우 현행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전업농이 아닐 경우 현행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영이양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했던 경지를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1ha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11월24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농민신문

◆ **국립종자원, 2014년 3사분기 품종보호동향 발표**

국립종자원은 2014년 3사분기 품종보호 동향을 발표하면서 9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가 7,307품종, 등록품종은 5,160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3사분기까지 신품종 출원 건수는 475품종으로 전년 동기 누계(425품종) 대비 50품종이 증가하였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247품종으로 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채소 21%(100품종), 식량 12%(59품종), 과수 7%(34품종), 특용작물 4%(19품종) 등의 순

또한 3사분기까지 등록된 보호품종은 424품종으로 현재까지 품종보호 등록품종수는 총 5,160품종이다.

작물류별로는 화훼 188품종(44%), 채소 133품종(31%), 식량 66(16%), 특용 14(3%), 과수 13(3%) 등의 순이며, 국화가 54품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미 45, 고추 42, 벼 28, 배추 23, 무 21, 백합 17, 딸기 11품종임

특히, 딸기는 지난 2012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이후 2년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국산품종이 등록되었다. (**설향·매향**)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은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내 육종이 확대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종들에 대한 국내 품종개발이 촉진되는 등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 * 국내 육성품종 출원건수: ('06)321 → ('08)416 → ('10)480 → ('13)510
- * 국산품종 점유율 증가: 딸기(설향·매향 등) ('05) 9% → ('13) 78%, 장미(그린뷰티 등) ('05) 1% → ('13) 26.9%, 프리지아(샤이니골드) ('1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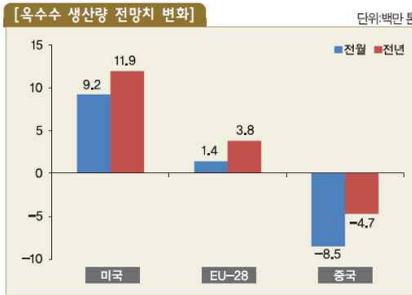
7. 해외 농업정보

◆ 옥수수 생산량 전월 전망치 대비 0.6% 증가 전망

옥수수 수급전망

세계 옥수수 역대 최대 생산량 전망

- 2014/15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역대 최대인 9억 8,590만 톤으로 전월(8월) 보다 630만 톤(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년 대비 269만 톤(0.3%)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대 최대 생산량이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1억 7,690만 ha로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수는 전월보다 0.8% 증가한 5.57톤/ha로 전망된다.
-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3억 6,566만 톤으로 전월 전망치보다 920만 톤(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보다 1,194만 톤(3.4%)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생산량이 예상된다.
 - USDA/NASS(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좋은-아주 좋음' 등급이 74%로 전월보다 2%p, 전년 동기 대비 9%p 상승하는 등 생육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수는 전월 전망치보다 2.6% 증가한 10.71톤/ha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며, 재배면적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인 3,393만 ha로 전망된다.
- EU-28 옥수수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보다 140만 톤(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380만 톤(5.9%) 증가한 수준이다.
 -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 비로 인한 풍부한 수분 공급과 생육에 적당한 기온으로 전월 대비 1.8%의 단수 증가가 전망되며, 수확면적 또한 전월 전망치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전월 전망치 대비 850만 톤(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469만 톤(2.1%) 감소한 수준이다.
 - 특히, 동북지역, 요녕성 서부, 길림성 중남부, 내몽고 동부 등의 지역에서 가뭄과 관개시설 부족으로 생육기에 피해를 입어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수는 5.83톤/ha로 전월 전망치 대비 3.8% 감소가 예상되며, 재배면적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 출처 : 관측센터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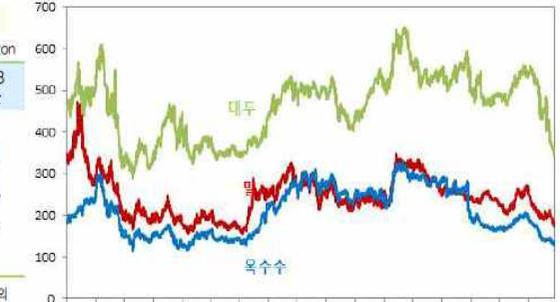
곡물가격, 최고치에서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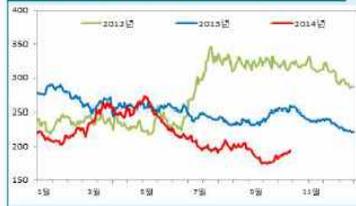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4.10.24)	전일대비	전월평균 ('14.9)	2013 평균
밀	190.18	▼1.7%	185	251
옥수수	138.97	▼1.8%	133	228
대두	359.13	▼1.6%	357	51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12월물, 대두:1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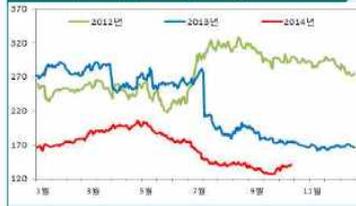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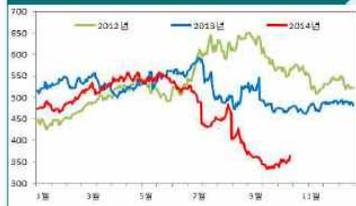
밀가격은 주요뉴스가 부재한 가운데 최고치에서 하락했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옥수수가격은 미국의 강우지연에 따른 수확호조로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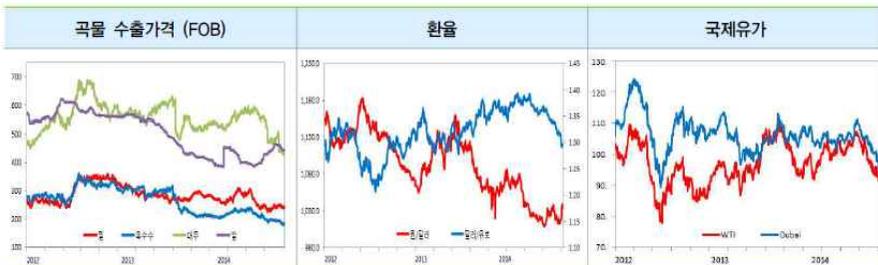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다음주 브라질의 강우에 따른 파종상황 개선전망으로 최고치에서 하락했음. 또한, 미국은 강우지연에 따른 건조한 기후로 수확이 가속화되고 있음.

연간·반년·분기

- 곡물 수출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유가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 리비아 원유생산량 감소, 미국 휘발유가격 강세 등으로 상승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4.8)	2013 평균	2012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35	▲0.9%	245	284	300
	옥수수	175	▼0.6%	194	265	300
	대두	401	▼1.2%	474	556	571
	쌀	453	-	461	488	572
환 율	원/달러	1,051	▲0.8%	1,025	1,095	1,127
	달러/유로	1,269	▲0.1%	1,33	1,33	1,29
국제유가 (US\$/barrel)	WTI	94.57	▲1.1%	96.08	97.94	94.19
	Dubai	94.90	▼0.01%	101.94	105.32	109.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4.9.26(수출가격), '14.9.30(환율), '14.9.2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USDA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는 미국산 옥수수 107,188톤을 멕시코로 판매했다고 함. 이 물량은 2014/15년 도착분 59,309톤, 2015/16년 도착분 47,879톤을 포함한다고 함.
-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따르면, 9월25일 주간 2014년 밀작황은 76%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이라고 함. 또한, 토양의 수분정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엔트레리오스 일부지역은 과도한 수분으로 차질을 겪고 있는 반면, 코르도바 지역은 강우가 필요한 상태임. 한편, 옥수수파종은 이상적인 기후조건으로 개선되었음.
- 러시아 농산물시장연구원 소브에콘에 따르면, 러시아는 8월 사상최대 곡물선적에 이어 9월 곡물수출은 국내가격 상승 및 타이탄 공급량으로 3.5~3.7백만 톤(전월 4.6백만 톤, 전년 2.9백만 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그 중 밀수출은 3.2백만 톤(4.2백만 톤, 2.4백만 톤), 보리는 350,000톤(396,000톤, 366,000톤)임.
- 중국 농업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산 유전자변형 대두의 수입허용절차를 중단하였다고 함.

8. 사업신청 안내

◆ 안심농사 도우미! 농작물재해보험 꼭 활용하세요

- 10월 1일부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시작
 - 판매기간 : '14.10.1~11.28
 - 판매처 : 지역 및 품목 농협
 - 보장범위 : (주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화재
 - 보험대상 : (필수) 농업용 시설물 (선택) 부대시설, 시설작물
 - 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 국고에서 지원

○ 농가 수요에 부응하여 시설원예보험 대폭 개선

- (신규도입)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대파,쪽파,실파)
- (시범사업지역 확대) 기존 70개 시군에서 100개 시군으로 확대
- (가입대상 확대) 과수(포도·감귤)하우스, 상주형하우스
- (농가 편의 제고) 보험료 카드 납부 도입 (수수료는 정부 부담)
- * (전국판매) :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호박,국화,장미
- * (100개 주산지판매) :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 이상 기후 증가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가입은 필수

- '14년은 연초부터 동해안 폭설과 경기 일산 용오름(강풍), 부산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 원예농가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 * 시설농가 보험금 지급 실적 ('11~'14.8) : 1,886건, 보험금 106억원 추정

참고 1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안)

품 목	2014년	대상지역
시설수박	10.1~11.28	전 국
시설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시설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농업용시설	10.1~11.28	전남(나주, 담양, 순천, 영암, 보성, 광양, 곡성, 화순, 무안, 영광, 강진) 100개 시·군
시설 (파프리카, 멜론)		
시설 (부추, 상추, 시금치)		
시설 (배추, 가지, 파)	10.6~10.24(난) 11.3~11.21(한)	전 국
마늘		
차	10.13~11.7	전남(보성)
양파	11.3~11.28	전 국
매실	11.3~11.28	전 국
복분자		전남(함평, 담양)
자두		전 국
포도, 복숭아		전 국
배(종합)		전남(나주, 영암)

*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일정에 따라 11월 판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지역은 '14년 신규 지역

◆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10. 20. ~ 11. 30.
- 장 소 : 농지소재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 경영체
 - ※ 공급 희망년도를 1년·3년·5년간으로 선택하여 다년 일괄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 직불금 신청상황
 - 논 농 업 : 131천농가 172천ha
(농지전용 등으로 '13년 174천ha 보다 2천ha 감소)
 - 밭 농 업 : 36천농가 49천ha
(논 이모작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13년 18천ha 대비 2.7배 증가)
 - 조건불리 : 38천농가 16천ha('13년 15천ha 대비 1천ha 증가)
 ※ 지급예상액 : 1,940억원('13년 1,572억원 대비 368억원 증가)
 · 논 1,660억원/ha당 90만원, 밭 196억원/ha당 40만원, 조건불리 84억원/ha당 25~50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직불금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 '14. 6. ~ 9월
 - 지급요건 이행점검(논·밭/농산물품질관리원, 조건불리/농어촌공사) : '14. 9. ~ 10월초
- 앞으로 추진계획
 - 점검결과, 신청상황, 변동내역 등을 기초로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14. 11. ~ 12월
 -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지급액의 2배 회수 및 향후 5년간 등록 제한



◆ 2015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모

- 사업개요
 - 공모기간 : 10. 15. ~ 11. 4. / 20일간
 - 사업량/사업비 : 5개소/150억원(개소당 30억원)
 - * 지특 50%, 지방비 30%, 자담 20%
 - 사업기간 : 4년간('15~'18)
 - 신청자격 : 산·학·연 등이 참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 사업내용 : S/W(제품개발, 홍보·마케팅), H/W(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

생명나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6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